

제 95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3.17)

일본의 EPA 정책의 주요특징과 전망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경험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된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은 2003 년 양국간 FTA 가 역내통합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2004 년 12 월 6 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그 첫 포부가 무색하리만치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EPA 정책의 향배를 전망한다.

일본 EPA 정책의 목표는 WTO 체제의 보완을 통해 대외경제관계발전 및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현재 진행중인 동아시아국과의 교섭에 주력하고 있고, 상대국의 상호여건을 고려해 여러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첫번째 목표인 WTO 체제의 보완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및 경제이익확보의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되나, 일본과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두번째 목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국이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관세수준이 낮고, 정작 일본의 농수산물시장은 보수적으로 개방했기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응수할만한 우리의 모델을 갖지 못하고서는 자칫 수세에 처할 가능성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Q&A>

Q.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FTA 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ASEAN 국가들과의 FTA 에서 특히, 서비스 분야가 궁금한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일본이 ASEAN 국가들과 체결한 FTA 를 보면, 서비스분야무역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데, 서비스 분야의 최대특징인, 동 산업의 독자적인 무역증진보다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ASEAN 국가들은 국내시장의 영세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서비스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고, 일본으로서는 ASEAN 에 진출한 자국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관련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ASEAN 진출을 촉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익을 얻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